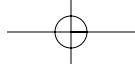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 피터 왈도와 교회개혁

중세시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 리옹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피터 왈도(Peter Waldo, c.1140-1217)이다.<sup>1)</sup> 프랑스 보(Vaux) 지역의 도핀(Dauphine)에서 출생한 왈도는 젊은 시절에는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였다. 그러나 1173년 경 파티석상에서 한 동료가 급사하는 것을 목격한 후 생의 의미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한 신부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물었다고 한다. 이 때 신부는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네가 완전해지고자 하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 보화를 쌓을 것이니라.” 이 본문은 이집트의 안토니우스(250?-356?)로 하여금 수도운동을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구절이었다.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임을 깨닫게 된 왈도는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기도 다짐했다. 신자는 내세의 부요를 위해 이생의 쾌락을 거절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다. 사도적 청빈은 그의 이상이었다. 그는 이 정신을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성직자나 수도사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이런 삶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삶의 방

1) 왈도는 보통 Valdes, Valdo(발), Valdesius, Valdexius 등으로 호칭되기도 했는데, 14세기까지는 그냥 왈도라고 했다. 그 후 베드로라는 의미의 ‘피터’를 더하여 ‘피터 왈도’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은 그가 베드로처럼 가난하게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도 베드로의 정신적인 후계자라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당시 호화롭게 사는 교황들과 대조시켜 보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부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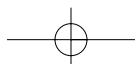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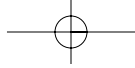
식은 세속에 물든 당시 교회에 있어서 일종의 쇄신운동이었다. 인간의 탐욕과 부의 추구에 대한 강력한 대안은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왈도의 이런 삶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자, 이들은 왈도파(Waldenses), 혹은 왈도파 사람(Waldensians)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삶의 방식을 따라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할 단체를 결성하였다. 1177년 무렵이었다. 왈도파 사람들은 성경을 암송하기도 했고 청빈한 생활을 추구했다. 왈도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의 필요한 부분들을 번역하도록 두 사람의 신부를 채용했다. 이렇게 한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부패는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말씀은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 주는 광명이라고 믿었다. 왈도는 성경과 기독교문서 등을 일반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프랑스로 번역하게 하고 이를 보급하는데 생애를 바쳤다. 그는 성경의 교훈처럼 전대나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들썩 짝을 지어 촌락이나 시장, 혹은 거리에서 전도하게 했고 월, 수, 금요일은 금식하게 했다. 이런 왈도파 사람 자신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맹세하지 않고 피 흘리는 일도 반대하였다. 교리적으로는 연옥을 부인하고 사자(死者)를 위한 기도를 반대하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주장하였다. 또 화제설을 부인하였는가하면 성자숭배도 반대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성경의 사상이었고, 일종의 중세 하에서의 개혁운동이었다.

왈도파 사람들이 지지를 얻고 세력을 확장해 가자 왈도파 사람들은 공인받지 않은 설교자라는 이유에서 리용의 대주교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왈도는 “우리는 인간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행5:29)는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여 이에 불복하였다. 왈도는 곧 대주교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1179년에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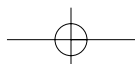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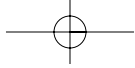


집된 제3차 라테란회의에서 왈도파는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었으나 월터 맵(Walter Map)이라는 달변가의 조롱을 당했다.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이단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으나 이들이 평신도라는 점에서 설교권은 인정해 주지 않았고 감독의 지도에 순복할 것을 명했다. 이런 중에서도 왈도파는 지지를 얻었고 추종자들은 남부 프랑스와 독일남부, 그리고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 스위스까지 퍼졌다. 그들은 행상으로 가장하여 성경을 비밀리 공급하였고 성경대로 사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로마 교황청의 계급 구조가 인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연옥, 미사, 화체설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세레시 십자가 표시하기, 유아를 봉헌하는 헌아식, 견신례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1220년에 작성된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왈도파 신앙고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sup>2)</sup>

이들의 교회 정치관은 ‘교회의 권징’이라는 문서에 나타나 있는데, 교회의 직분을 장로(감독)와 집사 두 직으로 보는 2직분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직분을 계급적 구조로 이해하지 않았고, 모든 장로의 동등권을 주장했다. 정리하면, 왈도파 사람들은 사도적인 소박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교회를 정화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와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삶을 주장한 것이다. 이런 왈도파의 주장은 교회 쇄신운동이자 진정한 교회 개혁이었으나 1184년 루시우스(Lucius) 3세에 의해 베로나 교회회의(Council of Verona)에서 이단으로 파문을 받았다. 그들은 심각한 탄압을 받았고, 알프스 산맥의 계곡들에 은둔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박해가 심해지자 가정 집에서 비밀 예배를 드렸고, 순회설교자들이 이들을 돌보았다. 13세기에는 박해가 더 심해졌다. 1229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발렌시아교회회의(Council of Valencia)를 소집하여 왈도파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한다 하여 이단으로 정죄하고 처형하도록 명했다. 1380년 교황 클레멘트 7세는 수도사를 동원하여 왈도파 색출에 나서 이들을 처형하였고, 1487년

2) 왈도파 신앙고백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14개 조항으로 된 것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것이 있다.





교황 이노센트 8세는 18,0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왈도파를 진멸하고자 했다. 이때 100만명 이상이 처형되었다고 한다.

계속된 탄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왈도파운동은 면면히 이어져왔고, 16세기 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이들은 루터의 개혁을 지원하였고,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들 왈도파는 교회 개혁을 주장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한 점에서 개혁운동임이 분명하지만 이들 역시 중세 시대라는 그 시대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들의 구원교리에서, 그리고 청빈생활에서 고행주의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한계였을 것이다.

